



Garance Cachard



Anna Yates-Liu



Min Hye-sung



Victorine Vlado

프로이 트라이

My pansori

나 의 판소리

나의 이야기, 나의 소리

안나 예이츠, 가향스 가샤르, 빅토린 블라보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판소리가 좋아서 만난 소리꾼.
그리고 그들의 스승이자 소리벗인 민혜성이 들려주는
판소리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프로그램



빅토린 블라보 Victorine Vlavo

춘향가 中 적성가
흥보가 中 흥보 마누라 음식 차리는 대목



안나 예이츠 Anna Yates-Lu

단가 인생백년
춘향가 中 이별가



가향스 가샤르 Garance Cachard

흥보가 中 비단타령
춘향가 中 그네뛰는 대목



민혜성 MIN Hye-Sung

흥보가 中 첫박타는 대목
농부가

Victorine Vlaovo



빅토린 블라보

빅토린 블라보는 프랑스에서 문화매개를 전공한 프랑스인이다.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다가 민혜성의 판소리 공연을 보고 고전소설의 이야기를 음악적으로 멋지게 표현해 내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궁금해져서 판소리를 배우게 되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판소리를 접하고 다시 파리로 갔다가 번역과 판소리를 배우기 위하여 다시 한국을 찾았다. 판소리 사설 번역에 관심이 있고 불어 판소리도 연구하고 있다.

춘향가 中 적성가

홍보가 中 홍보 마누라 음식 차리는 대목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빅토린 블라보입니다.

저는 약 10년 전에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판소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판소리 공연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무척 새롭고 멋있었습니다.

그 후 문화원에서 판소리 워크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등록을 하였고 그때 처음으로 민혜성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적성가는 춘향가 중 가장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저는 춘향가가 제일 어려운 판소리로 유명해서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홍보가 말고도 다른 레퍼토리도 배우면 좋겠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성가를 들었을 때 정말 맛있고 오묘해서 바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곡에 대해 알게 됐고 들을 때마다 그림을 그린 풍경처럼 눈앞에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서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판소리는 제 삶 그리고 인간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판소리를 부르기 위해 판소리 내용과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저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도 춘향이처럼 그리워하면서 못 보는 사람이 있었고, 홍보처럼 기적같은 날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소리를 통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두번째로 불러드릴 곡은 홍보가 중 음식 차리는 대목입니다. 홍보가는 많은 대목을 배우기도 했고 좋아하는 판소리입니다. 가사가 어렵지만 이 대목을 선택한 이유는 진양조 부분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홍보 마누라가 나오는 대목들을 다 좋아하지만 이 대목은 홍보 마누라가 놀보에게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대놓고 해주어 특별히 선호하는 곡입니다.

Anna Yates-Lu



안나 예이츠

안나 예이츠는 서울대 국악과 조교수이자 인류음악학자이다. 런던에서 판소리 공연을 보고 반해서 음악을 통해 문화를 그리고 문화를 통해 음악을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인 인류음악학 방법으로 판소리를 연구하기로 결심하였고, “오늘의 판소리: 현대사회에서 전통과 창조성을 조화시키면서”란 논문으로 런던대학교 아프리카 아시아 연구원(SOA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류음악학 방법으로 음악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인 민혜성에게 2014년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자 다양한 공연과 교육작업을 하며 유럽과 한국에서 활동 중이다.

단가 인생백년

춘향가 中 이별가

안녕하세요, 안나 예이츠라고 합니다. 보통 교육자이자 인류음악학 연구자로 활동하지만 오늘은 소리하는 사람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들려드릴 첫 곡은 <인생백년>입니다. 이 곡은 원래 소리 시작하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 부르는 단가이고요. 저희 민혜성 선생님의 스승이신 박송희 선생님께서 그의 스승이신 박녹주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반으로 작창한 단가입니다. 제가 이 단가를 처음으로 들은 것은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박송희 선생님을 인터뷰했을 때였습니다. 박송희선생님께서 박녹주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인사를 못 했던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시면서 <인생백년>을 부르셨는데 저에게는 이 순간이 너무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020년에 제가 서울대에 임용되고 한국에 와서 다시 본격적으로 소리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배운 곡이 <인생백년>이었습니다. 박송희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해외에 있어서 장례식도 못 갔었는데, 이 단가를 부르면 박송희 선생님이 떠오르는,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곡입니다.

제가 박송희 선생님을 처음으로 뵈는 것은 2014년 12월 박송희 선생님 제자발표회였습니다. 이 날은 제가 민혜성 선생님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소리를 처음으로 불러본 날이었는데, 박송희 선생님 앞이라 특별히 더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날의 기억이 오래 남는 이유는 소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박송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인데 첫번째는 박송희

선생님께서 제 밥에 고기를 올려주시면서 “자, 많이 먹어라, 소리 하려면 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 목에 좋은 거다.” 라며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나이가 90 됐는데 이제야 대략 소리가 뭔지 알 것 같아. 문제는 지금 몸이 안 따라간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소리가 달라질 거라고, 인생 좀 살아봐야 소리를 잘할 수 있다란 말씀은 그 당시에는 논리적으로 이해하긴 했는데 그 후에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대목은 춘향가 중 <이별가>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처음으로 배운 것은 8년 전, 2015년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외국인 대상 판소리 아마추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그때 민혜성 선생님께 저의 감정표현이 너무 과해서 많이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땡기머리는 20대였고, 이별가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에는 어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모두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봤잖아요? 최근 3년간 모두 많이 힘드셨지요? 연인과 이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팬데믹 같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해도 무조건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소용이 없는 상황, 서로를 위해서라도 강하고 싶은 상황은 아마 여러분도 이 3년간 경험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별가>란 대목을 통해 인생을 살면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20대 땡기머리 춘향에 이어서 오늘은 8년 만에 머리를 올리고, 아이를 낳았고, 30대가 되어서 경험 쌓인 춘향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rance Cachard



가향스 가샤르

가향스 가샤르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석사 졸업하였다.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 와서 한국 역사와 판소리 더 깊숙이 알아보려고 했다.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민혜성의 판소리 워크숍을 통해 판소리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 한국에 와서 지속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고 있다.

홍보가 中 비단타령

춘향가 中 그네 뛰는 대목

저는 한국 고고학과 역사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서 다양한 문화 분야를 찾다가 한국의 전통 소리인 판소리를 알게 되어 판소리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고, 워크숍에서 민혜성 선생님의 소리에 반하여, 판소리의 소리뿐만 아니라 판소리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배운 대목은 춘향가 중 쑥대머리입니다. 선생님의 소리 '쑥대머리 귀신형용 적막 옥방의 찬 자리에 생각 나는 것은 님뿐이라'를 듣게 되었을 때 '아, 이 곡을 제대로 꼭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냥 소리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서 부르고 싶기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쑥대머리 대목에 대해 더욱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소리 외에 또 하나의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복입니다. 판소리 워크숍 마치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공연하게 되었는데, 한복 입은 선생님의 '한'이 품어있는 소리를 들으니 선생님의 한복까지 저의 정신을 홀렸습니다. 한복의 선이 판소리와 어울려 마치 물과 슬픔과 파도가 함께 하는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한국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한국의 보물에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저는 한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한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명한 색상, 물들인 옷감에서 우아함이 잘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고리의 부드러운 곡선은 여성성을 잘 나타냅니다. 저의 판소리

선생님께서 한복을 입은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복을 입고 제가 좋아하는 대목 홍보가 중 비단타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역사와 판소리를 배우면서 판소리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더욱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와 여성사에 관련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학교 도서관에서 판소리 관련한 책을 빌리면서 글 속에서 진채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판소리는 남자들만 부르던 것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진채선은 최초 여성 명창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아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잘 모르지만 여성 판소리꾼과 여성 고수에게 길을 열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채선은 고창에서 1847년에 태어났는데 그녀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져서 고창에 가서 진채선 이야기와 판소리 이야기 그리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아내고, 박물관뿐만 아니라 고창읍성과 신재효 선생의 서재 등을 보면서 더욱 판소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채선은 창극의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녀 덕분에 박송희 명창과 민혜성 선생님 그리고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부를 대목은 춘향가 중 그네 뛰는 대목입니다. 판소리와 저의 첫 만남 그리고 판소리를 알아보는 과정과 비슷하게 도련님이 춘향을 처음 봤을 때 또는 만났을 때 그는 얼마나 신기했는지, 얼마나 알고 싶었는지 소리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IN Hye-Sung

민혜성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민혜성은 ‘소울소리판’ 단체를 이끌어가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양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남대, 경북대 출강을 통해 국악교육에도 힘쓰고 있는 열정적인 소리꾼이다.

2007년부터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프랑스, 독일을 시작으로 벨기에,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판소리 교육과 공연을 하며 문화 외교관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21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인 장관상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세계판소리협회 수석이사, 판소리학회 국제이사직을 맡고 있다.

홍보가 中 첫 박타는 대목

농부가

소리하는 민혜성입니다. 어려서부터 전통예술을 시작하여 40여 년간 소릿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몸소 체험하며 슬럼프도 넘기고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켜온 세월만큼 전통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말 그대로 전하여 통하는 것이 전통일텐데 이 시대가 잘 전하고 통하고 있는지? 전통의 선율을 가지고 재배치하는 창작의 작업도 하고, 다른 장르의 음악을 전통의 음색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로 이 시대의 음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글로벌화된 시대에 발맞추는 전통음악은 또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 등 많은 고민을 가지고 끊임없이 시대와 소통하려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이셨던故박송희 선생님께 동편제 소리를 이수 받아 무대, 강단, 미디어 등을 통해 보존, 전승, 보급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주로 프랑스, 벨기에 현지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 달가량 판소리 강습을 해 오고 있으며 해마다 유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판소리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그 연령대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짧은 강습 기간을 아쉬워하는 강습생들 중 지속해서 소리를 더 배워보고자 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생겨났지요. “판소리를 계속 배우고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에 오세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단순한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한국행을 선택한 외국인들에게 판소리를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고,

전공하는 학생들과 함께 산공부 체험으로 실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대나 대회에서 소리할 수 있는 경험도 함께 해왔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케이팝이 좋아서 왔느냐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통 소리인 판소리가 좋아서 선택한 여정이라 말합니다. 판소리의 선율에 감동받고 판소리의 발성에 감탄하고 판소리의 이야기가 재미있어 판소리를 즐기고 있을 뿐이지요. 판소리의 선율과 발성은 외국인들에게 청각적으로 어느 정도 감상할 수 있으나 이야기의 전달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통은 공연 중 자막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데 좀 색다른 시도를 해왔습니다.

에르베 페조디에(희극인)와 함께 판소리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희극인이 불어로 연극적인 요소를 넣어 이야기를 먼저 전달하고 그 이야기를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장르인 판소리로 들어보자는 형식인데 현지에서는 그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물론 현지 언어로 번역이 훌륭해야만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요.

또 한가지 흥미롭게 노력 중인 것은 번불판소리입니다. 판소리 이야기를 음율에 어울리는 불어 번역작업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불어가 판소리 선율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최고의 효과는 판소리를 잘하는 외국인이 있어야 하고 불어를 잘하는 한국 소리꾼이 있어야 하겠지만 아직은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과 시도되는 작업들은 아직도 첫걸음 중입니다. 매 순간 설레는 맘으로 판소리 예술을 대하고 있는 나의 판소리는 이 시대와 함께 진행 중인 ‘樂인’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



고수 | 최효동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전수자
서천전국국악경연대회 고법부문 대상

뽕과리 | 임정욱

소리

김유원 이범희 이유정 박선영 이서현
송혜연 현승아 안가인 장혜라 정서정

스태프

비온뒤프로덕션

기획연출	김성주
운영	정지은
홍보물디자인	스튜디오 흥단
사진	이은숙
영상촬영	김정우, 이큰솔

서울남산국악당

실장	엄국천
기획홍보팀	
팀장	이유정
담당 PD	유예진
팀원	김혜경, 박예은, 서현재
무대기술팀	
팀장	김성수
조명	이성헌
음향	김승왕
무대	박영규
운영지원팀	
팀장	정현준
팀원	이보라, 전다혜, 천운비

인사이트모션

대표이사	조용태
사업부문 대표	김지옥

주최/주관

비온뒤
서울남산국악당

후원

소울소리판,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남산국악당은 2007년 전통공연예술의 진흥과 국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국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공연예술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대와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과 예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생각하는 비온뒤

비온뒤는 예술이 되는 모든 무대에 대한 가치 인식과 책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예술을 통한 교감과 심의 필요성을 느끼며 예술가의 정성과 작품의 생명력 그리고 관객의 감정 하나하나에 대해 소중함을 담아 가치 있는 공연예술의 제작과 실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공연예술 분야에 적합한 제작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통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 공연기획 & 제작
- 컨설팅
-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 페스티벌 및 프로젝트 기획운영

Contact Us

Facebook www.facebook.com/beondi108
Instagram [beondi_art](https://www.instagram.com/beondi_art)
Email beondi108@daum.net

BEONDI

Thinking of people, art and a happy life

Understanding the necessity of life with a rest and a communication through arts, we focus on a creation and realization of valuable performing arts reflecting the sweat and tears of artists, the vitality of each work and the feelings of audience. In particular, we have built a production system suitable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and are leading the creation of new artistic values as a representative agency that proves the value of traditional music.

Business

- Planning and production of performances
- Consulting
- Artist management
- Planning and operation of festivals and art projects

Contact Us

Facebook www.facebook.com/beondi108
Instagram [beondi_art](https://www.instagram.com/beondi_art)
Email beondi108@daum.net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INSIGHT MOTION

 비온뒤


서울남한산국악당
Seoul Namhan Gukhokdang